

보도 일시	2022. 7. 25.(월) 06:00 2022. 7. 25.(월) 석간	배포 일시	2022. 7. 25.(월) 06:00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화학사고예방과	책임자	과 장 심우섭 (044-202-8965)
		담당자	사무관 안유진 (044-202-8966) 주무관 이민진 (044-202-8971)

## 고용노동부,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이행실태 불시감독 시행 (7.25.~9.2.)

- 화학물질 제조·수입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여부 집중 확인 -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사장 안종주)은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화학물질 제조·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·수입하는 사업장 등 200여 개소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\*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\*\*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,

\* 제조·수입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·제공 및 영업비밀 심사 의무 이행,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, 경고 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

\*\* 작업환경측정·특수건강진단 실시,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보건조치 이행

- 일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시료를 직접 채취·분석하여, 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 등 허위 작성이 적발되는 경우 의법조치할 예정이다.

□ 지난 2월, 경남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(클로로포름)이 함유된 세척제에 노출되어 집단으로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,

○ 고용노동부에서는 재발 방지와 산업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화학물질 제조·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실시했다.

- 자율점검 결과, 대상 사업장 8,300여 개소 중 절반이 넘는 4,971개 사업장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하였고, 이 중 3,126개소의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을 이행했다.
-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“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, 이번 감독 이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”라고 당부했다.
- 아울러 “아직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·수입자는 조속히 가입하여 제도를 이행할 것”을 요청했다.

